광주·전남 미래 밝힌다

영산그룹경영 유럽한인화합 노력

유럽한인연합회장 박종범(54)

광주 출신으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연매출 1조원대 영산그룹을 경영하는 재외동포 기업인. 유럽 한인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수 등지에도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풍경소리'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목사 최명진(45)

최근 100회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무등산 풍경소리'의 사회를 지난 2004년부터 맡아 풍경소리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상감독, 사진작가, 공연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권·평화운동 '이주민사목위원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43)

2004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로 임명됐다. 올해 '국내이주민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인권·평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포브스 100대 명의 위암분야 최고

조선대병원장 민영돈(54)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와 호남위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경제전문지인 포브스 선정 100대 명의, 전국 대학병원 위암분야 교수들이 추천하는 명의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 멘토링 후원

아이퍼스트 병원장 박종(50)

목포 출신. (사)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다문화가정과 마음을 다친 아동들에게 예술치료를 통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후원을 해왔다.

아시아예술극장 수장… 세계로 연결

亞예술극장감독 프리 라이젠(61)

벨기에 출신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팅포인트' 등 세계 축제 프로그래밍 디렉터로 활약해왔다.

극작가이자 시인… 한국문학 기대주

극작가 최치언(41)

영암 출신의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대한민국연극상 희곡상, 대산문화상 희곡상 등 굵직한 상을 수상했다. 국립극단의 '단막극 연작' 프로그램에 선정돼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를 공연중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호남 단장

전남대 교수 한은미(49세)

지난해 여교수로는 드물게 학생지원처 부처장을 역임한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5년간 25억원 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호남제주권역 사업단 초대 단장을 맡았다.

30년 보건환경연구 외길 베테랑

市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53)

광주시 첫 여성 연구원장. 전남대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한 뒤 지난 1982년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보건환경연구 분야 외길을 걸어온 베테랑이다.

여성들의 권익 복지 향상 앞장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최순애(61)

전남도 여성가족과장 등을 지낸 3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비엔날레 성공추진 세계적 큐레이터

비엔날레 예술감독 김선정(47)

올 9월 열리는 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6명 중 한 명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을 맡는 등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큐레이터다.

태국에 3층 규모 갤러리 오픈

전시 기획자 조승기(42)

대인시장에 예술공간 '미테우그로'를 오픈, 전시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태국 카오산로드 인근에 3층 규모의 갤러리 '존 데(jone D)'를 오픈할 예정이다.

호남기록 문화유산 발굴·콘텐츠화

전남대 교수 김대현(53)

국문학과 교수로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호남기록 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해남 녹우당 고문헌을 정리한 서적 10권을 완간한다.

추진력 탁월… 일반직 여성 첫 국장

광주시 보건환경국장 박향(49)

광주시 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내부승진을 통해 일반직 국장으로 승진.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구보건소장, 광주시 보건위생과장 등을 지냈다. 원칙론자이면서도 포용력이 넓고 추진력이 강하다.

기아 V11 이끌 국보급 명장

KIA 타이거즈 감독 선동열(49)

'무등산 폭격기'로 유명한 국보급 투수. 지난 2005년 삼성 감독 취임과 함께 우승을 이끌며 명장의 반열에 등극했으며, 지난해 10월 고향으로 돌아와 타이거즈의 7대 감독으로 취임했다.

시립극단 이끌 지역 대표 연극인

시립극단 예술감독 박윤모(59)

25년만에 부활된 광주시립극단을 책임지게 된 지역 연극계의 대표 인물. 2년 동안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스타 K3 준우승… 정규앨범까지

버스커버스커 리더 장범준(23)

광주 출신으로, 지난해 엠넷(Mnet) '슈퍼스타 K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발표한 정규 1집 음반 수록곡 '여수 밤바다'는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대표기획통, 다양한 정책 발굴

전남발전연구원장 이건철(57)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책연구 전문가'로 연구원 기획실장을 거쳐 공모를 통해 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집행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기획했다.

인권단체 국내외 교류 주도

5·18재단 사무처장 김찬호(41)

1999년부터 기념재단에서 근무를 시작해 국제협력팀장, 교류연대팀장을 지냈다. 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 광주아시아인권학교 등 주요 국내외 교류사업을 통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K리그 박사 1호, K리그 최고 덕장

광주 FC 감독 최만희(56)

K리그 박사 1호의 지장이자 폭넓은 인간관계와 소통능력으로 광주를 이끌고 있는 덕장. 전북 감독 및 부산, 수원 코치 생활을 하며 쌓은 노하우로 2012시즌 K리그 무대에 광주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색 미디어아트 최고 기대주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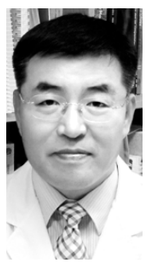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영상을 전공했다. 지난해 제 17회 광주 미술상을 수상한 그는 올해 영국과 서울, 광주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며 이색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英 플라워쇼에서 국내 첫 최고상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35)

곡성 출신.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작품으로 국내 최초 아티즌 가든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정원으로 승화시킨 작품을 5월에 출품한다.

조혈계 종양 유전자연구 세계적 권위



화순전대 혈액내과 김형준(53)

국내 조혈계 종양 유전자 연구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두주자. 한국인 고유 유전체의 통합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화순백신특구 독일프라운호퍼연구소 유치에 앞장섰다.

지역문화 현안 실무 총괄

지역문화교류재단 이기훈(42)

다양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제시하는 문화단체 실무자. 지역 문화 시민단체의 네트워크인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사무처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포럼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광주체육 체계적 발전 토대 마련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홍식(57)

동신대 교수출신으로 체육인 중심의 광주 체육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대학골프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역 클래식 붐 주도 '음악전도사'

음악실 '다락' 대표 김명선(62)

영어교사, 교육사업가를 거쳐 클래식 음악 전도사로 변신, 사재를 털어 음악실 '다락'을 오픈했다. '다락'은 클래식 강좌, 하우스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지역 클래식 붐을 주도하고 있다.

하버드의 진실… 뉴욕영화제 감독상

다큐멘터리 감독 신은정(41)

'지성의 상징' 하버드 대학의 이면을 꼬집은 다큐 '베리타스'(VERITAS)로 2011 뉴욕국제독립영화제 다큐 부문 베스트 감독상을 수상했다. 다큐 내용은 책(국문·영문)으로 펴내는 작업 진행.

국내 첫 뇌혈관 네비게이션 수술

전대병원 신경외과 김태선(49)

뇌혈관질환의 권위자. 네비게이션 원리를 이용한 뇌혈관질환 수술방법을 국내 처음으로 국제저널에 발표했다. 국내 신경외과의사 중 가장 많은 수술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수자 권리 보호 인권활동가

장애우권익문제硏 노미덕(56)

흥사단, 광주여성의 전화 등에서 활동하며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 활동가. 범죄청소년 대안교육체 '나잘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도마 대들보… 첫 금메달 기대

체조국가대표 양학선(20)

광주체고 출신의 한국 도마의 대들보. 오는 7월 개막하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비장의 기술 'YANG Hak Seon'으로 한국에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더욱 정성껏 잘 하겠습니다"

| 본 점 | 062-227-9940 | 충장점 | 062-227-9970 | 목포점 | 061-262-9200 | 장흥점 | 080-222-9975 | 서울점 | 02-765-9940 | 순천점 | 061-752-9940